

金文의 여성칭위로 본 여성상

김효정*

〈목 차〉

1. 서 론
 2. 혼인여성의 칭위
 3. 사후여성의 칭위
 4. 신분칭위
 5. 결 론
- 참고문헌
[中文提要]

1. 서 론

칭위는 개인적인 특성을 나타낼 뿐 아니라 친족제도 및 가족 관계 등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당시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문헌에는 《儀禮》, 《爾雅·釋親》 등에 다양한 여성칭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금문에 나타나는 주대 여성 칭위는 혼인시의 칭위, 시호, 제사의 대상으로써 칭위, 친족을 나타내는 칭위, 신분을 나타내는 칭위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여성칭위는 女, 妣, 母, 祖母, 姑, 母, 妣, 婦, 妻, 妾, 嬖, 姆, 天君, 小君 등으로 이들은 모두 성(姓)을 사용하고 있다.

祖母, 姑, 母, 妣 등은 제사를 받는 대상에 쓰였고, 상대와 서주 초기 금문에는 제사의 대상인 여성을 일간과 같이 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남성에게도 사용하던 칭위이다.

또한 주대에 제후 및 기타 귀족의 딸이 출가할 때 혼수품으로 만들어

* 慶星大學校 韓國漢字研究所 研究員(sodam2277@hanmail.net)

준 청동예기인 잉기가 다량 나타나고 이러한 기물에는 孟, 伯, 宗, 仲, 叔, 季 등으로 형제자매의 항렬과 성을 표시하고 자신의 출생국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대 이전의 금문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주대는 상나라를 멸하고 새로이 나라를 세우면서 통치를 용이하게 하고자 예제문화를 탄생시키면서 책명과 하사 조상에 대한 제사 등에 각 신분 지위에 따른 차등의 예를 적용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신분칭위도 다양하게 나타나 계급사회의 면모를 보여 주게 되며, 특히 여성에 관한 칭위는 상대에 비해 다양해진다.

주대는 모계사회의 흔적과 부계사회의 흔적이 동시에 남아 있으며, 남녀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개념이 정립되던 시기로 금문에 나타나는 여성칭위에 대한 연구는 당시 가족관계 친척관계 등의 형성과 여성의 지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며 당시 여성의 지위는 칭위에도 반영되고 있으므로 여성칭위에 대한 연구는 사회 제도와 여성지위의 연관성을 읽어낼 수 있다.

이렇게 당시 사회의 주요한 제도 형성과 함께하였으며 1차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금문에 나타나는 여성칭위를 통해 당시 여성의 지위와 여성상을 알아보려고 한다.

본 논문의 금문 자료는 《金文語料庫》¹⁾를 토대로 하고 기존의 여성칭위 연구와 문헌자료를 참고로 하되, 여성 칭위 연구 범위는 주대를 위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를 이용하고 예문은 기본적인 것으로만 함을 밝혀둔다.

2. 혼인여성의 칭위


주대 혼인 여성에 대한 칭위는 혼인하는 여성의 신분을 나타내는 정보가 되는데 출신국과 성 그리고 항렬이 나타나고 청동기 중에는 혼수

1) 上海華東師範大學 中國文字研究與應用中心에서 《殷周金文集成》의 11,985건을 토대로 하고 《金文總集》과 새로 출토된 청동기 명문과 자형자료와 연구자료 등을 총망라하여 총 13,250건의 청동기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만든 것이다.

품인 잉기에 혼인여성의 정보가 가장 잘 기록되어 있으며 《金文語料庫》에는 잉(媵)자가 기록된 잉기가 169건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면 105건이다. 이 잉기에 여성은 성으로 칭하고 있으며 혼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칭위가 있다.

2.1 女子稱姓

주대의 금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성에게 성(姓)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姓)은 《說文》 여(女)부수에는 “성(姓)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다. 옛 신성한 어머니가 하늘에 감응하여 아들을 낳았으며 여(女)와 생(生)으로 구성되었다(姓, 人所生也. 古之神聖母, 感天而生子, 從女從生).”라고 하였으며, 《白虎通·姓名》에는 “성(姓)은 낳는 것이다(姓者, 生也).”라고 하여 성(姓)은 혈족을 밝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문에는 성(姓)을 卩로 쓰고 있어 생(生)과 같으며, 백성(百姓)은 모두 百生으로 쓰고 있어 여(女)와는 연관이 없는 글자이며 전국 시기의 청동기 「」에 성(姓)은 卩로 쓰고 있으며 의미부에 인(人)을 쓰고 있다.

주대 금문에 나타나는 성(姓)은 姜、姬、姁、嬀(婁)、嬴、媯、子、
嫺、妊、姁、媿、嫚、嬀、妣、妃、嬖、嬗、姚、好、媾、嫫、媼、嫪、
嬭、嬬 등으로 여(女)자가 들어 있는 성(姓)이 대부분이며 여성관련 기
물에 쓰이고 있다.

이는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귀속되던 모계사회의 흔적이 남아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으며 모계 씨족 사회 때는 각 씨족이 각기 다른 족칭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족칭은 씨족의 혈통을 표시하는 부호가 되고 그 씨족 구성원의 성(姓)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王國維는 《觀堂集林》 「殷周制度論」에서 남녀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남녀의 구별에서도 주대는 전대와 비교하면 엄격했다. 남자는 씨(氏)로 부르고 여자는 성(姓)으로 부르는 것이 주나라 때 통용되던 제도였다. …… 동성불혼제는 주대에 생긴 제도로 여자를 성(姓)으로 칭한 것은 주대에 시작된 것이다(男女之別, 周亦較前代爲嚴. 男子稱氏, 女

4 · 中國學 第45輯(2013.8)

子稱姓，此周之通制也。……或可通婚，而同姓不婚之制，實自周，女子稱姓，亦自周人始矣。”²⁾

라고 하여 주대에 성으로 칭한 것은 주나라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이며 당시 혼인제도인 동성불혼제도는 꼭 성(姓)을 밝히는 이유가 되었으며 또한 이는 외혼제를 표방하였다는 것이다. 《禮記·喪服小記·正義》에는 “은대는 세대 계보가 없어 6대가 지나면 흐려지게 되므로 부인은 성(姓)을 모르게 되는데 주나라는 그렇지 않았다(殷無世系，六世而昏，故婦人有不知姓者，周則不然).”고 하여 여성에게 성(姓)으로 칭한 것은 주대에 생겨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金文語料庫》에 수록된 잉(媵)자가 있는 잉기 105건 중 기물을 만든 사람과 기물을 받는 여성이 동성인 잉기는 73건으로 여자를 성(姓)으로 불렀지만 성(姓)은 모두 부계를 따르고 있으며, 그 중에 아버지 명의를 기물이 가장 많다는 점은 성(姓)이 부계를 표시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曹兆蘭은 여성이 혼인할 때 가져가거나 보내는 잉기를 만든 사람을 8종으로 나누었는데,³⁾ 그 중 부모명의, 부친명의를 잉기가 많은데, 이들 잉기를 만든 사람과 기물을 받는 사람은 동성이며 제후국의 여성은 모두 출신국의 성(姓)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부계를 따른다는 증거가 된다.

이로써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씨의 개념은 이 시기에 정립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대의 엄격한 종법제도와 여성이 남성 쪽으로 시집가는 혼인제도하에서도 여성은 자신의 성(姓)을 바꾸지 않고 자기가 속한 족의 성(姓)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2 長幼를 나타내는 여성칭위

주대의 혼인예물에 주로 나타나고 있는 칭위로 향렬 칭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작위를 나타내는 칭호로 쓰이기도 했다.

2) 王國維, 《觀堂集林》(北京: 中華書局, 1959), 473~474쪽

3) 曹兆蘭, 《金文與殷周女性文化》(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4), 156~158쪽.
“父母名義, 父名義, 母名義, 兄名義, 姪名義, 主嫁國名義, 來媵國名義, 宗主國名義.”

(1) 孟·伯·宗

맹(孟)의 《說文》 해석은 “장자이다(長也).”라고 하였으며, 《白虎通·姓名》에는 “적장자(嫡長子)는 백(伯)이라 하고, 서장자(庶長子)는 맹(孟)이라 한다(嫡長曰伯, 庶長曰孟).”라고 했는데, 이는 바로 적자 가운데 장자를 백(伯)이라 하고, 서자 중에 장자를 맹(孟)이라 칭한다는 말이다. 백(伯)과 맹(孟)으로 적서의 구별이라 할 수 있는데 금문에는 장자에 대해 맹(孟)과 백(伯)을 함께 쓰고 있다.

《孔子家語》에 의하면, 공자는 同父異母의 큰 형이 있었는데 이름은 맹피(孟皮)이고 자는 백니(伯尼)라 하였다.⁴⁾ 이로 보아 맹(孟)과 백(伯)이 집안의 장자에 대한 칭호라는 것은 알 수 있다. 그러나 105건의 혼인 관련 잉기 가운데 맹(孟)으로 장녀를 표한 경우는 28건이며 백(伯)으로 표한 경우는 2건 밖에 없어 맹(孟)과 백(伯)으로 적서를 구별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금문은 「孟簋」에 맹(孟)이 인명으로 쓰이고 있으며 그 외에는 대부분 항렬 칭위로 사용되고 있다.

「伯家父鬲」 “백가보가 큰딸 강을 위한 잉기를 만들었다(白(伯)家父乍(作)孟姜朕鬲).”

「黃子鐘」 “황(黃)나라의 큰딸 희를 위해 기물을 만들었다(黃子乍(作)黃孟姬行器).”

「齊侯作孟姬盤」 “제(齊)나라의 임금의 황씨에서 시집오는 큰딸 희를 위한 기물을 만들었다(齊鐘(齊)侯(侯)乍(作)皇氏孟麗(姬)寔(寶)敝(盤)).”

「毛叔盤」 “모(毛)나라의 숙(叔)이 잉으로 혼인하는 큰 딸을 위해 만든 예기이다(毛弔(叔)朕(朕)彪氏孟麗(姬)寔(寶)敝(盤)).”

「僕孟姜匜」 “왕노(王敝) 기(僕)나라의 맹강이 예기를 만들었다(王敝僕孟姜乍(作)旅也(匜)).”

「魯大司徒子仲伯匜」 “려(厲)로 출가하는 서녀 중 장녀 희를 위한 잉기를 만들어 보낸다(庶女厲(厲)孟麗(姬)).”

4) 王德明 主編, 《孔子家語譯注》(廣西: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8) 卷9, 405쪽. “雖有九女, 是無子. 其妾生孟皮, 孟皮字伯尼, 有足病, 於是乃求婚於顏氏.”

「齊侯作孟姬盤」의 제(齊)나라는姜姓(姜姓)인데 희성(姬姓)을 위한 기물을 만들었으므로 제나라로 시집오는 희성(姬姓)의 혼인 배우자를 위해 만든 기물로 볼 수 있다.

「魯大司徒子仲伯匱」는 “서장자는 맹(孟)으로 부른다(庶長曰孟).”의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으나 금문의 다른 예는 보이지 않는다.

백(伯)이 항렬로 쓰일 때는 맹(孟)과 같이 장자를 의미하고 백(伯)으로 항렬을 나타낸 명문은 다음과 같다.

「**叔** **叔** 姬 簋」 “할(**叔**)나라의 숙(叔)과 희(姬)가 큰딸 괴(媿)를 위한 잉기를 만들었다(**叔** 弔(叔) **叔** 嬖(姬) 乍(作) 白(伯) 鮒(媿) 卅(媵) 匱(簋)).”
 「**孟** 父 簋」 “맹필보는 환(幻)으로 시집가는 큰 딸 임(妊)을 위한 예기를 만든다. 모두 8점이다(**孟** 父 乍(作) 幻 白(伯) 鮒(妊) 卅(媵) 匱(簋) 八).”

종(宗)은 면(宀)과 시(示)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문에 종(宗)은 宗室, 宗周, 皇宗, 宗家, 大宗, 宗伯, 宗彝, 宗老, 多宗, 宗婦, 宗廟, 宗小子 등으로 종가, 종묘, 대종, 관직명, 종묘 제사에 쓰이는 예기, 왕족 등을 나타내는데 쓰이며 「縣妃簋」의 ‘伯室’은 백(伯)이 종(宗)과 같이 쓰였다고 할 수 있다. 혼인 예기에 여성의 항렬로 종(宗)을 성 앞에 붙인 경우는 큰 딸 또는 종부의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季良父簋」 “계량보가 큰딸 운을 위한 잉기를 만들었다(季良父 乍(作) 宗 勳(姁) 卅(媵) 丘(簋)).”
 「季宮父簋」 “계궁보가 큰 딸을 위한 잉기를 만들었다(季宮父(作) 宗 勳(姁) 剗(媵) 匱(簋)).”
 「晉公盆」 “비가 종부를 위해 만든다(否(丕) 乍(作) 元女).”

「晉公盆」에 ‘元女’는 종부 또는 큰 딸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혼인관련 금문 중에는 맹(孟)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 맹(孟)과 백(伯)으로 적서를 구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仲

《說文》에는 “중(仲)은 가운데를 뜻한다(仲, 中也).”라고 하였으며,

《釋名》에는 “아버지의 아우를 중보(仲父)라고 한다. 중(仲)은 중(中)과 같고 가운데라는 뜻이다(父之弟曰仲父. 仲, 中也, 位在中也).”라고 하였다. 갑골문과 금문에는 중(仲)을 중(中)으로 쓴다. 《左傳·隱公》 원년 조의 “그래서 중자는 나에게 시집왔다(故仲子歸於我).”에서도 중(仲)은 항렬을 나타내고 있다.

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𣥂叔盥」 “부숙(𣥂叔)이 둘째 딸 희를 위해 예기를 만든다. 부숙은 중희가 영원히 소중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𣥂弔(叔)乍(作)中(仲)𣥂(姬)旅盥. 𣥂弔(叔)侔(其)萬年永𣥂(及)中(仲)𣥂(姬)實用).”
 「王作仲姜鼎」 “왕이 중강을 위한 예기 정을 만들었다(王乍(作)中(仲)姜寶鼎).”
 「仲姜鬯」 “중강이 예기를 만들었다(中(仲)姜乍(作)尊(尊)鬯).”

「𣥂叔盥」의 기물을 받는 사람은 혼인하는 딸이며, 「王作仲姜鼎」의 왕은 주나라 왕으로 기물을 받는 사람은 강성(姜姓)으로 희성(姬姓)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므로 왕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내가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 「仲姜鬯」은 어머니가 딸을 위해 만들었거나 또는 딸이 아버지를 위해 만든 기물로 중강의 신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3) 叔

형제 항렬의 순서를 나타내는 말로 셋째를 뜻하고, 부친의 남동생을 칭하는 말이며 부친과 같은 항렬 중 나이가 어린 남자를 칭하는 말로 ‘소(少)’로 가차되어 어리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儀禮·觀禮》에는 “동성(同姓)의 작은 나라는 숙보(叔父)라 하고 이성(異姓)의 작은 나라는 숙구(叔舅)라고 한다(同姓小邦, 則曰叔父, 異姓小邦, 則曰叔舅).”라고 하여 숙(叔)은 백(伯) 이외를 칭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금문에 숙(叔)으로 항렬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이다.

「作叔嬴鬯」 “셋째 영을 위해 잉기를 만든다(乍(作)叔(叔)嬴卣(媵)鬯).”
 「鄭登伯鬯」 “정나라의 등백(登伯)이 셋째 嬭를 위해 예기를 만든다

(佗(鄭)登白(伯)乍(作)弔(叔)敵(婦)簋(薦)鬲).”

「傳盥」“숙방보가 셋째 길이 영원히 소중하게 사용하기 바란다(弔(叔)邦父弔(叔)敵(姑)邁(萬)年子子孫孫永寶用).”

「京叔姬簋」“경숙희가 보배로운 예기 보를 만든다(京弔(叔)敵(姬)乍(作)寶簋(簋)).”

(4) 季

계(季)는 형제 항렬 중 막내를 의미한다. 《說文》에는 “계(季)는 어린 것을 칭한다(季, 少稱).”고 하였고, 《左傳·昭公》 2년 조에 “진(晉)나라의 소강(少姜)이 죽어 소공이 진(晉)나라로 갔다(晉少姜卒, 公如晉).”라고 하여 소(少)가 계(季)의 의미로 쓰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춘추시기의 「欒書缶」에는 “정월 늦은 봄(正月饑(季)饑(春))”이라고 하여 늦은 때를 의미하고 있으며 지금도 초봄[季春], 초여름[季夏] 등으로 쓰이고 있다.

계(季)가 항렬을 나타내는 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趙簋」“趙가 엎드려 절하고 왕의 은혜를 칭송하였다. 이로 계강(姜)을 위해 보배로운 예기를 만든다(趙拜)頤首. 猷(對)頤(揚)王休. 用乍(作)季姜(尊)彝.”

「王伯姜鼎」“왕백강이 희성의 막내 희복녀(姬福女)를 위해 예기를 만든다(王白(伯)姜乍(作)季敵(姬)福(福)女(尊)彝).”

「伯索史孟」“백색사가 막내딸 강(姜)을 위한 예기를 만든다(白(伯)索史乍(作)季姜寶孟).”

「鄭義伯匜」“정나라의 의백이 막내 강(姜)을 위해 예기를 만든다(佗(鄭)義白(伯)乍(作)季姜寶也(匜)用).”

「趙簋」의 계강(季姜)은 趙의 어머니일 수 있고, 「王伯姜鼎」의 季姬는 딸이라고 할 수 있다. 주나라 왕실에 시집 온 강성(姜姓)의 여성 백강(伯姜)은 계희(季姬)의 어머니일 수 있으며, 희성(姬姓)과 강성(姜姓)의 혼인관계를 알 수 있으며 그 딸은 부계의 성을 따라 희성(姬姓)이다. 「鄭義伯匜」의 정(鄭)나라는 희성(姬姓)의 나라이므로 계강(季姜)은 강성(姜姓)의 나라에서 시집오는 사람을 위해 남편의 나라에서 만든 기물로 볼 수 있다.

2.2 稱字

남성과 여성은 이름 외에 자(字)를 갖게 되는데, 여성이 자(字)를 갖게 되는 경우에 대한 문헌기록은 《禮記·曲禮上》에 “여자가 허혼을 하면 비녀를 꽂고 자를 준다(女子許嫁, 笄而字).”와 《儀禮·士婚禮》의 “여자가 허혼을 하면 비녀를 꽂고 예를 올리고, 자를 부른다(女子許嫁, 笄而醴之, 稱字).”라고 하여 허혼을 하고 나면 자(字)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子

여성과 관련된 금문에도 자(字)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특히 많이 쓰이고 있는 ‘자(子)’가 있다. 李學勤은 “금문의 여성 칭위 중 ‘자(子)’는 작칭 또는 미칭으로 쓰였고, 주대 여성도 이름과 자를 함께 사용하였다.”⁵⁾고 하였다.

문헌에는 ‘자(子)’가 아들과 딸을 모두 지칭하는 말로 쓰이며, 또 시집으로 간 후에 붙인 칭위로 사용되고 있다.

《穀梁傳·文公》 12년 조에 “자숙희(子叔姬)라고 하는 것은 귀하게 여긴 것이다. 노문공의 어머니와 자매이기 때문이다. 일설에는 허혼하고 죽었기 때문에 혼인한 예로 대우한 것이다(其曰子叔姬, 貴也. 公之母姊妹也. 其一傳曰許嫁以卒之也).”라고 한 것과 《左傳·文公》 14년 조에 “자숙희(子叔姬)는 제(齊)나라 소공의 부인이 되었다(子叔姬妃齊昭公).”와 “제(齊)나라에서 자숙희(子叔姬)를 잡았다(齊人執子叔姬).” 등 모두 항렬 칭위 앞에 ‘자(子)’를 붙이고 있다. 杜預는 “자숙희(子叔姬)는 이미 시집 간 사람을 칭하는 게 명백하다.”고 했는데, 《左傳·宣公》 5년 조의 “가을 9월에 제나라의 고고가 숙희를 맞이하러 왔다(秋九月, 齊高固來逆叔姬).”와 같은 해 “겨울에 제(齊)나라 고고가 자숙희(子叔姬)를 맞이해갔다(冬, 齊高固及子叔姬來).”가 그 증거로 허혼을 하고 아직 시집가지 않았다면 ‘자(子)’라는 칭호를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자(子)’를 여성의 자(字)로 볼 수 있는데, 《金文語料庫》에 의하면 ‘자(子)’를 항렬자 앞에 붙인 경우는 10건이며, 문헌의 예에 의

5) 李學勤, 「先秦人名的幾個問題」, 《社會問題的歷史考察》(成都: 成都出版社, 1992), 110쪽.

하면 아래 기물은 이미 혼인한 후에 만들어 보낸 기물이라고 볼 수 있다.

「慶叔匱」“慶叔^叔이 잉으로 가는 자 맹강을 위해 기물을 만들었다(慶叔(叔)^叔(作)^夫(媵)子孟姜盥^盥(匱)).”

「匱君壺」“큰 딸 비(妃)를 위한 잉기를 만든다(匱(鑄)子孟鮒(妃)媵匱壺).”

「齊侯孟」“제나라 임금이 잉으로 가는 둘째 딸 강(姜)을 위한 보배로운 예기를 만든다(齊(齊)侯(侯)乍(作)朕(媵)子中(仲)姜寶孟).”

「輪罍」“제나라 중의 자 ^輪가 둘째 딸 강(姜)을 위한 예기를 만든다(曳中(仲)之子^輪乍(作)子中(仲)姜寶罍).”

「長子沐臣簠」“큰 딸 내(嬭)를 위한 잉기를 만든다(乍(作)其子孟嬭之母^媵(媵)臣(簠)).”

「桀可忌豆」“桀가기가 둘째 딸 길(姑)을 위해 잉기를 만든다(桀可忌乍(作)畢元子中(仲)姑媵杞(曄)).”

「番匱生壺」“잉으로 가는 큰 딸 비(妃)를 위해 잉기를 만든다(媵(媵)畢元子孟妃^卣).”

「復公仲簠蓋」“養부인을 위해 잉기 궤를 만든다(用乍(作)^媵子孟^媵婦(婦)臣(尊)媵(媵)媵(簠)).”

「紀公壺」“기나라의 임금이 셋째 딸 강(姜)을 위해 보배로운 예기를 만든다(紀(紀)公乍(作)爲子弔(叔)姜匱盥壺).”

「魯少司寇盤」“노나라 소사구 봉손택이 큰 딸 희(姬)를 위한 잉기를 만든다(魯少^司寇^封孫宅乍(作)其子孟^媵媵(姬)傲朕(媵)般(盤)也).”

(2) 母

다음 명문들에 ‘모(母)’는 성(姓)과 이름 또는 자 뒤에 쓰이고 있으며 여성을 ‘성과 이름+ 모(母)’ 형식으로 칭하고 있는데 ‘모(母)’는 어머니나 딸로 쓰인 경우가 아니고 여성에 대한 총칭이거나 자(字)로 볼 수 있다.

「虢伯鬲」“궤나라의 임금이 희대모(姬大母)를 위한 예기를 만든다(虢白(伯)乍(作)媵(姬)大母^尊(尊)鬲).”

「姬芴母鬲」“희잉모(姬芴母)가 예기 력을 만든다(媵(姬)芴(芴)母乍(作)俗鬲).”

「姬趁母鬲」 “희음모(姬趁母)가 예기 렉을 만든다(姬趁母乍(作)𠄎(尊)鬲).”

「辛仲姬皇母鼎」 “辛나라의 중희황모(仲姬皇母)가 예기를 만든다(辛中(仲)𠄎(姬)皇母乍(作)𠄎(尊)鼎).”--서주말기

「蔡大師鼎」 “채(蔡)나라의 태사 昂이 허(許)나라에 잉으로 시집가는 叔姬可母 飮(𠄎)을 위해 예기를 만든다(蔡大市(師)𠄎(昂)𠄎(腰)𠄎(許)弔(叔)姬可母飮(𠄎)).”--채(蔡)나라는 희성의 나라이고 허(許)나라는 강성으로 희성과 강성의 통혼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應侯簋」 “응(應)나라의 임금인 희원모(姬原母)를 위해 예기를 만든다(𠄎(應)𠄎(侯)乍(作)𠄎(姬)遠(原)母𠄎(尊)𠄎(簋)).”

「姬寔母豆」 “희환모(姬寔母)가 大公, 章公, 口公, 魯中(仲), 𠄎白(伯), 孝公, 𠄎公을 위한 예기 두를 만든다(𠄎(姬)寔母乍(作)大公章公口公魯中(仲)𠄎白(伯)孝公𠄎公豆).”

「干氏叔子盤」 “干氏叔자가 仲姬客母를 위해 잉기 반을 만든다(干氏弔(叔)子乍(作)中(仲)姬客母𠄎(腰)𠄎(盤)).”

「曹公盤」 “조(曹)나라의 임금인 잉으로 가는 큰 딸 姬𠄎母를 위해 예기 반을 만든다(𠄎(曹)𠄎(公)𠄎(腰)孟姬匠母𠄎(盤)).”

「姑胥母方鼎」 “길홀모(姑胥母)가 꺄(𠄎)을 위해 보배로운 예기 정을 만든다(𠄎(姑)胥母乍(作)𠄎(寶)𠄎(尊)鼎).”

「姑互母觶」 “길공모(姑互母)가 예기를 만든다(姑互母乍(作)𠄎(寶)).”

「姑口母匱」 “길口모(姑口母)가 예기 대야를 만든다(𠄎(姑)口母乍(作)寶𠄎(匱)).”

「仲姑義母匱」 “중길의모(仲姑義母)가 예기 대야를 만든다(中(仲)𠄎(姑)義母乍(作)旅也(匱)).”

「蘇治妊盤」 “소(蘇)나라의 야임(治妊)이 꺄(號)나라의 비어모(妃魚母)를 위해 예기 반을 만든다(𠄎(蘇)晚(治)妊乍(作)號妃魚母般(盤)).”

「蘇治妊鼎」 “소(蘇)나라의 야임(治妊)이 꺄(號)나라의 비어모(妃魚母)를 위해 예기를 만든다(𠄎(蘇)治(治)妊乍(作)號妃魚母𠄎(腰)).”

「鑄公簠蓋」 “주(鑄)나라 임금인 맹임거모(孟妊車母)를 위한 예기를 만든다(鑄(鑄)公乍(作)孟致(妊)車母朕(腰)𠄎(簠)).”

「陳侯鼎」 “진(陳)나라 임금인 口媯罔母를 위해 예기를 만든다(陳(陳)侯)乍(作)口媯罔母𠄎(腰)鼎).”

「伯侯父盤」 “백후보(伯侯父)가 숙규사모(叔媯母)를 위해 예기를 만

든다(白(伯)侯(侯)父勝(勝)弔(叔)媯母盤(盤)).”
 「陳侯盤」 “진(陳)나라의 임금인 왕실로 시집가는 仲媯媯母를 위해 예
 기를 만든다(陳侯(侯)乍(作)王中(仲)媯媯母勝(勝)般(盤)).”
 「陳伯元匱」 “진(陳)나라의 임금인 劬의 아들 백원(伯元)이 서맹규주모
 (西孟媯媯母)를 위한 잉기를 만든다(陳(陳)白(伯)劬之子白(伯)元. 乍
 (作)西孟媯媯母勝(勝)鉶(匱)).”
 「陳子匱」 “진(陳)나라의 자자(子子)가 奔孟媯媯母를 위한 잉기를 만든
 다(陳(陳)子子乍(作)奔孟爲(媯)媯母勝(勝)鉶(匱)).”
 「榮有司母」 “영(榮)나라의 유사(有司) 칭(母)이 예기를 만든다. 嬴母
 를 위한 잉기로 사용하였라(司父(榮)又(有)嗣(司)母乍(作)倕母. 用
 朕(朕)嬴母(母)).”
 「榮有司母」 “영(榮)나라의 유사(有司) 칭(母)이 예기를 만든다. 嬴母
 를 위한 잉기로 사용하였라(司父(榮)又(有)嗣(司)母乍(作)倕母. 用
 朕(朕)嬴母(母)倕(榮)又(有)嗣(司)母乍(作)倕母. 用朕(朕)嬴母(母)).”
 「許男鼎」 “허(許)나라의 임금인 成姜媯母를 위한 예기를 만든다(無
 (許)男乍(作)成姜媯母朕(朕)倕(尊)鼎(鼎)).”
 「許男魯生鼎」 “허(許)나라의 魯生이 수모(壽母)를 위한 잉기를 만든
 다(無(許)魯生乍(作)魯(壽)母朕(朕)貞(鼎)).”
 「長子沫臣簠」 “맹내지모(孟嬭之母)를 위한 잉기를 만든다(乍(作)其子
 孟嬭之母倕(朕)臣(簠)).”

(3) 大小

여성의 칭위 가운데 대(大)와 소(小)는 동성의 여러 여자가 같은 남편
 과 결혼한 경우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적처와 서처를 구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문에는 항렬 앞에 대(大)를 쓰고 있는 경우가 있다.

「蔡侯缶」 “채(蔡)나라의 임금인 큰 딸 희(姬)을 위해 잉기를 만들었다
 (蔡侯(侯)甗乍(作)大孟姬媯(媯)甗缶).”
 「蔡侯尊」 “이에 큰딸 희(姬)를 위한 잉기를 만든다(用詐(作)大孟姬媯
 (媯)彝(尊)).”

이 두 기물은 채(蔡)나라의 소후(昭侯)가 자신의 딸에 대해 대맹희(大

孟姬)라고 하여 출가하는 딸에 대해 대(大)를 미칭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虢伯鬲」 “궤(虢)나라의 임금인 큰 딸을 위해 예기를 만들었다(虢伯(伯)乍(作)敔(姬)大母尊(尊)鬲).”
 「大師子大孟姜匱」 “태사의 딸 대맹강(大孟姜)이 예기를 만드니 제사에 사용하여 효도하여라(大師子大孟姜乍(作)般(匱). 用(享)孝).”

소(小)는 미칭 또는 시호로 볼 수 있다.

「衛鼎」 “위가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중강씨(仲姜氏)를 위한 예기를 만드니 자자손손 소중하게 사용하기 바란다(衛乍(作)文考小中(仲姜氏)孟鼎. 衛(其)萬年子子孫孫永寶用).”

3. 사후 여성의 칭위

청동기는 대부분 제사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명문에는 제사를 받는 대상이 등장하는데 그 중 여성이 제사를 받는 경우는 母+일간, 妣+일간, 祖妣+일간, 文母(文母), 皇母(皇母), 高(姑), 祖母(祖母), 王母(王母), 文王母(文王母) 등에 성을 더하거나 미칭 또는 시호 등을 더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또한 상대에는 주로 모(母)와 비(妣)에 일간을 더해 사용하던 것에 비해 칭위가 다양해진 것으로 이는 주대에는 조상제사를 더 중시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郭沫若은 왕모(王母)는 할머니나 왕(王)과 모(母) 또는 서왕모(西王母)가 아니라 모계사회 때의 주장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모계제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라 하였다.⁶⁾

《爾雅·釋親》에는 “아버지의 아버지는 왕부(王父)가 되고 아버지의 어머니는 왕모(王母)라고 한다(父之考爲王父, 父之母爲王母).”라고 하여 왕모(王母)는 아버지의 어머니로 할머니를 뜻하고 왕은 높이는 의미로

6) 郭沫若, 《中國古代社會研究》(北京: 中國華僑出版社, 1954), 35쪽. 《周易》(晉六二)의 “晉如, 愁如, 貞吉. 受茲介福, 於其王母.”

붙인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금문에는 서주 중기 또는 서주 말기의 기물에 나타나는데 서주말기의 「伯康簋」에 “王父王母”와 서주말기의 「史伯碩父鼎」에 “皇考始(釐)父王母.” 등에서는 어머니 또는 할머니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3.1 여성의 시호

남편과 부인의 시호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가 있다. 먼저 부부의 시호가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左傳》에는 정무공(鄭武公)의 부인 무강(武姜), 위장공(衛莊公)의 부인 장강(莊姜), 진목공(秦穆公)의 부인 진목희(秦穆姬), 成公 4년 조의 조삭(趙朔)의 시호는 장(莊)인데 그의 처는 조장희(趙莊姬)이며, 위정공(衛定公)의 부인 정강(定姜), 위선공(衛宣公)의 부인 선강(宣姜) 등이 남편의 시호 같이 쓰고 있다. 이로써 춘추시기로 가면서 여성은 남성에게 귀속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후에 중국 여성이 혼인 후 남편의 성(姓)을 따르게 되는 것과 연관하다고 할 수 있다.

금문에 부인을 남편의 시호로 칭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伯多父鬲」 “백다보가 성희(成姬) 다모(多母)를 위한 예기를 만든다(白(伯)多父乍(作)成姬(姬)多母(母)鬲).”

「哀盤」 “나의 아버지 전백(奠伯)과 어머니 전희(奠姬)를 위해 예기를 만든다(用乍(作)朕皇考奠白(伯)奠姬(姬)寶般(盤)).”

「六年召伯虎簋」 “나의 아버지 유백(幽伯)과 어머니 유강령((幽姜令)我考幽白(伯)幽姜令).”

「師趯鼎」 “사음이 돌아가신 아버지 성공(聖公)과 어머니 성희(聖姬)를 위해 보배로운 예기를 만든다(師趯乍(作)文考聖公文母聖姬(姬)尊(尊)).”

「師趯鬲」 “사음이 돌아가신 아버지 성공(聖公)과 어머니 성희(聖姬)를 위해 보배로운 예기를 만든다(師趯乍(作)文考聖公文母聖姬(姬)尊(尊)簋. 其(其)萬年子孫永寶用. 其(其)).”

「麟縛」 “돌아가신 할아버지 성숙(聖叔)과 할머니 성강(聖姜)에게 제사를 드려 효를 행하고 할아버지 성혜숙(成惠叔)과 할머니 성혜강(成惠姜)에게 효를 행하라(用享(享)用孝於皇祖聖弔(叔). 皇妣(妣)聖姜. 於皇祖又成惠弔(叔). 皇妣(妣)又成惠姜).”

「膳夫梁其簋」 “돌아가신 아버지 惠仲과 돌아가신 어머니 惠妣을 위한 예기를 만들었으니 제사에 사용하여 효를 행하라(肅(膳)夫荆(梁)其乍(作)朕皇考惠中(仲). 皇母惠妣(尊)殷(簋). 用追享(享)孝).”

「余刺之瘖子虞鼎」 “오호 슬프구나 자숙과 자부인이여. 만세토록 사용할지어다(烏(鳴)呼哀哉. 刺弔(叔)刺夫人. 萬世用之).”

「仲剝父簋」 “돌아가신 아버지 遲伯과 돌아가신 어머니 遲姬에게 제사드릴 예기를 만든다(中(仲)慍(剝)父乍(作)朕皇考遲伯(伯)王母遲姬(姬)尊(尊)殷(簋)).”

「頌鼎」 “이로써 돌아가신 아버지 공숙(棼叔)과 어머니 공사(棼姒)의 제사에 사용할 보배로운 예기를 만든다(用乍(作)朕皇考棼弔(叔)皇母棼姒(姒)寶(尊)鼎).”

「伯多父鬲」은 부부가 다(多)를 시호로 하고 있으며, 「寰盤」에는 작기자의 부모에게 전(奠)을 시호로 사용하였고, 「六年召伯虎簋」은 부부가 幽를 시호로 같이 사용하였다. 「師趯鼎」과 「師趯鬲」 두 기물은 아버지 성공(聖公)과 어머니 성희(聖姬)께 제사드릴 예기를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음(趯)의 어머니는 남편의 시호 성(姓)을 따랐다. 父는 족휘로 본다.

「頤鍾」은 춘추 중기 혹은 말기의 기물이며 할아버지 성숙(聖叔)의 배우자인 성강(聖姜)과 할아버지 성혜숙(成惠叔)의 배우자 성혜강(成惠姜)은 각각 성(聖)과 성(成)으로 남편의 시호를 사용하고 있다.

「膳夫梁其簋」의 혜중(惠仲)과 혜익(惠映)은 부부로 각각 같은 시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余刺之瘖子虞鼎」의 날숙(刺叔)과 날부인(刺夫人)도 부부로 시호가 같다.

「仲剝父簋」은 서주 중기의 기물로 지희(遲姬)는 희성(姬姓)이며 지(遲)는 남편의 시호를 따랐다고 할 수 있다.

「頌鼎」, 「頌簋」, 「頌簋蓋」, 「頌壺」, 「頌簋蓋」 등에도 기물을 만든 송(頌)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호는 공(棼)이며 남편의 시호를 따르고 있는 경우이다,

남편과 다른 시호를 사용하는 금문의 예는 「師詢簋」 “이로써 위대한 할아버지 을백(乙伯)과 동익희(同益姬)와 같이 보배로운 예기를 만들었다.(用乍(作)朕刺(烈)且(祖)乙白(伯)同益姬寶(簋).)”가 있다.

남편과 시호가 같거나 다른 경우에 대해 李學勤은 적치인 경우는 남

편과 같은 시호를 사용하고 서처는 다른 시호를 사용한다고 하였는데⁷⁾, 금문에는 여성이 사후에 제사를 받는 대상이 되었을 때 남편의 시호를 사용한 경우가 더 많으며 이때는 부모가 아닌 자식이 만드는 것으로 여성이 혼인 후에 남성 쪽에 소속됨과 동시에 자식들에게는 어머니 또는 할머니로써 아버지, 할아버지와 같은 지위를 누린다고 볼 수 있다.

3.2 여성의 제사 대상 칭위

제사 대상의 칭위에 있어서도 주대 여성 칭위는 다양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 여성이 제사를 받는 대상인 경우의 칭위는 妣+ 일간, 母+ 일간 등으로 나타나는 반면 주대는 考母, 文母, 皇母, 姑, 皇妣, 文妣+ 일간, 妣+ 일간, 母+ 일간 형으로 나타난다. 考母, 文母, 皇母 등은 제사를 받는 대상으로써의 어머니로 금문에는 기물을 만드는 사람 자신의 어머니인 경우, 또는 혼인 배우자에게 만들어 주어 시어머니인 경우, 딸이나 여동생에게 만들어 준 것으로 남편 쪽의 어머니 즉 기물주의 시어머니가 되는 경우가 많다. 고(姑)는 공(公)과 함께 쓰여 부부를 의미하는데 고(姑)는 시어머니로 비(妣)는 할머니 또는 어머니의 의미로 쓰였다.

「陳逆簠」 “대종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께 제사를 드려 효를 행하라(台(以)烹(享)台(以)孝於大宗^{生(皇)根(祖)生(皇)妣(妣)生(皇)考(考)生(皇)母})).”

「宰獸簠」 “나의 열조 유(幽)와 중익강(仲益姜)을 위한 예기를 만든다(用作(作)朕刺(烈)且(祖)幽中(仲)益姜寶^{區(簠)})).”

「頌壺」 “나의 돌아가신 아버지 공숙(葬叔)과 어머니 공백사(葬故姒)에게 제사 드릴 예기를 만든다(用作(作)朕皇考葬弔(叔)皇母葬^{故(姒)}寶(尊)鼎).”

「叔夷鐘」 “조부모님과 부모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여라(用烹(享)於其皇妣(祖)皇姁(妣)皇母皇考).”⁸⁾

「叔叔^叔姬^姬簠」 “할숙과 할희가 큰 딸을 위한 잉기를 만드니 그 시부

7) 李學勤, 「先秦人名的幾個問題」, 《社會問題的歷史考察》(成都: 成都出版社, 1992), 108쪽.

8) 「叔夷鐘」은 춘추 말기 齊靈公 때의 기물인데 23개가 한 벌인 중이다. 그 중 3건에 조부모와 부모의 합제에 대한 기록이 있다.

모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여라(𠄎𠄎(叔)𠄎𠄎(作)白(伯)媿(媿)𠄎𠄎(媿). 用𠄎(享)孝於其姑公).
 「犀鬲」 “서(犀)가 姜價를 위한 예기를 만든다. 시부모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여라(犀(作)姜價. 用𠄎(享)考(孝)於故(姑)公).”

황모(皇母)에게 고(考)자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미칭으로 쓰이고 있으며, 「𠄎𠄎(叔)𠄎𠄎(媿)」와 「犀鬲」의 고공(姑公)은 기물 주인의 남편 쪽 부모 즉 시부모 뜻한다.

4. 신분 칭위

신분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자격을 일컫는 말로 금문에는 여성 신분을 나타내는 다양한 칭위가 있는데 친족의 칭위와 사회적 신분칭위로 나눌 수 있어 여성의 역할에도 계층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1 여성의 친족 칭위

(1) 女·母

금문 자형은 𠄎 𠄎 𠄎 𠄎로 초기 금문에는 두 손을 머리 앞에 교차하고 꿇어앉은 모습이나 후기로 갈수록 꿇어앉은 모습은 없어진다.

《金文語料庫》에 의하면 女자가 나오는 기물은 468件이다. 그 중 은대 42건, 은대 혹은 서주 초기 3건, 서주시기 336건, 춘추시기 65건, 전국시기 17건이다. 이 가운데 여(女)자가 여성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는 은대의 기물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고, 대부분 너[汝]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주대의 금문에 여(女)자가 너[汝]의 의미로 쓰인 경우는 330점이며 서주와 춘추시기에 주로 나타난다.

이외 「者𠄎鐘」에는 “너가 편안하기를 …… 女(汝)女(安) ……”으로 편안하다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모(母)의 금문 자형은 𠄎 𠄎로 여(女)자의 𠄎에 두 점을 찍어 여성의 유방을 의미하며 어머니가 되어 젖을 먹인다는 뜻이 있으며 넓은 의미

로 여성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여(女)가 모(母)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다.

「**母**鼎」 “기(**母**)가 어머니를 위한 예기를 만든다(**母**女(母) **母**(尊)彝).”
 「**亞** **母**作母辛簋」 “**亞**{**母**}**母**가 어머니 신을 위한 예기를 만든다(**亞**{**母**}**母**乍(作)女(母)辛 **母**(寶)彝).”

(2) 妣

《爾雅·釋親》에 “살아계실 때는 부모라고 하고, 돌아가시면 고비(考妣)라고 한다(生曰父母, 死曰考妣).”라고 하였으며, 《禮記·曲禮下》에는 “왕의 어머니를 황조비(皇祖妣)라고 한다(王母曰皇祖妣).”하여 모두 어머니를 뜻한다.

비(妣)자 금문 자형은 **妣**로 여(女)와 비(匕)로 구성된다.

금문에는 할머니 또는 어머니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二** **妣** **其** **其**」 “마침 음(彤)제사를 거행하던 날이었다. 제례 중에 대을(大乙)의 배우자인 할머니 병(丙)께도 제사를 드렸다(遘 **妣**(於) **妣**(妣丙) **其**(彤)日大乙爽).”

「**武** **乙** **爽**」 “무을의 아내 무(戊)의 제사를 드리다(遘 **妣**(於) **妣**(妣戊) **武** **乙** **爽**(麗)).”

「**我** **方** **鼎**」 “어(禦)는 할아버지 을(乙), 할머니 을(乙), 할아버지 기(己), 할머니 계(癸)께 제사 드리고, 이어서 두 분 할머니께 제사 드렸다(我 **乍**(作) **妣**(禦) **妣**(祭)且乙, 匕(妣)乙, 且己, 匕(妣)癸 **妣**(延) **妣**(禦)二女).”

「**我** **方** **鼎**」 “이에 보배로운 예기를 만들어 밤낮으로 여진 덕이 있는 할아버지 을공(乙公)과 할머니 일무(日戊)께 제사 드려라(**其**(其)用 **其**(夙)夜 **其**(享)孝於 **其**(其)且(祖)乙公於 **其**(妣)日戊).”

「**武** **乙** **爽**」에 비무(妣戊)는 작기자 **武**의 어머니이고, 「**二** **妣** **其** **其**」, 「**我** **方** **鼎**」, 「**我** **方** **鼎**」에는 비(妣)가 할머니를 뜻하고 있어 금문에 비(妣)는 할머니 어머니를 뜻하는데 모두 제사를 받는 대상이며 일간을 사용하고 있다.

(3) 姑

친족 칭위 중 고(姑)는 《爾雅·釋親》에 의하면 “부인이 남편의 어머니를 고(姑)라고 한다(婦稱夫之母曰姑).”라고 하였고, 또 “아버지의 자매는 고모[姑]가 된다(父之姊妹爲姑).”라고 하였다. 《禮記·坊記》에는 “혼례는 사위가 친히 맞이하고 구고(舅姑)를 뵈는(昏禮, 壻親迎, 見於舅姑).”라고 하였다. 鄭玄은 “구고(舅姑)는 처의 부모이다. 처의 아버지는 외구(外舅)이고, 처의 어머니는 외고(外姑)이다(舅姑, 妻之父母也. 妻之父爲外舅, 妻之母爲外姑).”라 하였고, 또 《禮記·坊記》에 “구고(舅姑)는 여자의 부모이다. 부인은 남편의 부모를 구고(舅姑)라 하고, 남자는 처의 부모를 역시 구고(舅姑)라고 한다(舅姑, 女之父母. 婦人謂夫之父母曰舅姑. 男子謂妻之父母亦曰舅姑).”라고 하였다.

이로 보면 고(姑)는 부부가 서로의 어머니를 칭하는 말이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고모라는 뜻이 있다.

《左傳》에 의하면 “질녀[姪]가 고모[姑]를 따라가서 남편이라고 한다(姪其從姑, 謂丈夫也).”고 했으며, 또 《左傳·襄公》 23년 조에 “처의 자리를 그 질녀가 이어 받는다(繼室以其姪).”라고 하여 적처로 가는 여성이 자신의 질녀를 잉으로 데리고 시집가서 유사시에는 질녀에게 자신의 자리를 잇게 하였는데 여기서 태어나는 자식들의 친족칭위는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혼인제도는 고(姑)가 고모, 시어머니, 장모가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강성(姜姓)의 여성(姜1)과 회성의 남성(姬1)이 혼인하면 그 자식 중 딸은 회성(姬2)이 되고 다시 강성(姜2)의 남성과 혼인하게 되면 姜2의 남성은 姜1의 여성이 장모이면서 자신의 고모일 수 있고, 이와 반대의 경우엔 姬2의 여성에게 회성(姬姓)인 姜2의 어머니는 고모이면서 시어머니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종사촌과 외사촌간의 혼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고(姑)와 구(舅)는 함께 쓰이며 구(舅)는 시아버지이자 장인이자 외삼촌으로 불리게 되며 고(姑)는 장모이자 고모이며, 시어머니이자 고모가 될 수 있는 근친혼적인 혼인제도와 관계가 있다.

금문에는 ‘고(姑)’와 ‘질(姪)’의 친족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

으며 문헌에도 모계에 의한 형제자매의 호칭은 어느 여성의 ‘同母弟’ 등으로 어머니 쪽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고(姑)’라는 호칭이 부부 양쪽의 어머니를 뜻하고 또 고모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은 주대에도 내혼제가 남아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이해해야만 금문에 나타나는 여성에 대해 어머니인지 아내인지 딸인지 해석할 수 있으며 혼인관계를 정확히 읽을 수 있다.

금문에 고(姑)가 나타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庚嬴卣」“文姑의 제사에 쓸 진귀한 예기를 만든다(用乍(作)卣文姑寶卣(尊)彝).”
 「伯庶父簋」“백서보가 왕고 범강을 위해 보배로운 예기 궤를 만든다(白(伯)庶父乍(作)王姑凡姜卣(尊)彝(簋)).”

「伯庶父簋」의 왕고(王姑)는 주 왕실과 혼인관계에 있는 강성(姜姓)의 여성으로 왕의 장모나 어머니 또는 고모라고 볼 수 있는데 고모로 보려면 여기서 왕은 주나라 왕이므로 주대의 여성칭위에 있어 모계의 성(姓)을 따르지 않고 부계의 성(姓)을 따르므로 회성(姬姓)이어야 하는데 강성(姜姓)이다. 그러므로 ‘王姑凡姜’은 고모는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범강(凡姜)은 왕의 할머니 또는 어머니가 될 수 있다.

「姬作卣姑日辛卣」“희가 어머니 일신을 위한 보배로운 예기를 만들었다(姬(姬)乍(作)卣(姑)日辛卣(尊)彝).”
 「晉姜鼎」“진나라 강성의 여성이 말하길, 너는 나의 선고군의 진나라 땅을 관리하라(晉姜曰, 余隹(唯)司(嗣)朕先姑君晉邦).”
 「復公子簋」“등(鄧)나라로 시집가는 나의 고모 맹피를 위해 잉기를 만든다(乍(作)我姑(鄧)孟媿(媿)卣(簋)).”

(4) 姪·姪

질(姪)에 대해 《說文》에는 “형의 딸이다(兄之女也).”고 하였으며, 《釋名·釋親屬》에는 “고(姑)는 형제의 딸을 질녀[侄]라고 한다(姑謂兄弟之女爲侄).”라고 하여 질(侄)은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며, 《國語·周語》에 “나의 어머니 태강의 질녀이다(則我皇妣大姜之姪).”라고 하였는데

注에는 “여자가 형제의 자식을 말하며 남녀 모두 姪이라고 한다(女子謂昆弟之子, 男女皆曰姪).”라고 하였으며, 《爾雅·釋親》에는 “여자가 형제의 딸을 질녀[姪]라고 한다(女子謂兄弟之子爲姪).”라고 하여 질(侄)과 질(姪) 모두 질녀를 의미하고 있으며 질(侄)은 처음에는 여자에게 쓰이던 말이었으므로 여(女)를 의미부로 썼다. 후에 그 의미가 확대되어 남녀를 통칭하게 되었으며 자형상 의미부에 인(亻)을 사용하여 남녀를 구별하게 되었으며 질(侄)과 질(姪)은 모두 지(至)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성은 고모를 따라 남편의 집으로 간다고 풀이할 수 있다. 《釋名·釋親屬》에는 또 “질(侄)은 갈마드는 것이다. 함께 가서 남편의 아내가 되고 다시 번갈아 들어 가는 것이다(侄, 迭也. 共行事夫, 更迭進御也).”라고 한 것이 증명이 된다.

문헌 자료에 의하면 주대 혼인제도에 질녀와 고모가 함께 한 남편의 아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금문에 질(侄)은 「乖伯歸逢簋」의 “귀 괴백(歸乖伯)에게 비후의 가족으로 만든 옷을 보내게 하셨다(王命中(仲)侄(致)歸乖白(伯)𠂔(貔)裘).”에서 보내다는 뜻으로 쓰이고, 「同簋」에는 “북쪽으로 현수(玄水)까지이다(畢逆(朔)侄(至)於玄水).”라고 하여 이르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嬭자는 또한 질(姪)로 볼 수 있다.

「齊縈姬盤」 “제나라 영희의 질녀가 보배로운 예기를 만든다(齊縈姬之嬭乍(作)寶(寶)𠂔(盤)).”

「齊嬭姬簋」 “제나라로 시집가는 희성의 질녀가 보배로운 예기를 만든다(齊嬭姬致(嬭)致(姬)乍(作)寶(寶)𠂔(簋)).”

「齊縈姬盤」은 제나라 영희(縈姬)의 질녀(嬭)가 고모와 함께 제나라로 시집왔다는 말로 여기서 嬭는 잉(媵)이 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4.2 혼인에 의한 신분 칭위

주대 여성의 신분을 나타내는 칭위는 처(妻), 잉(媵), 왕의 아내에 대한 칭위, 제후와 사(士)의 아내에 대한 칭위 등으로 여성의 신분 칭위는 남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결정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 妻

妻의 금문 자형은 𡚦로 꿰어얹은 여자의 뒤통에서 머리를 손질해 주는 모습으로 《禮記·曲禮》에 의하면 “여자는 15세에 계례를 하고 20세에 출가한다(女子十有五年而笄, 二十而嫁).”고 하여 혼인하기 전에 계례를 하고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뜻이며 계례는 여자의 머리를 손질하여 비녀를 꽂아 주는 의식인데 글자에 이러한 의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혼인한 여성을 칭하는 말이다.

《禮記·曲禮下》에 의하면 “천자의 아내는 후(后)라 하고, 제후의 아내는 부인(夫人)이라 하고, 서인의 아내는 처(妻)라고 한다(天子之妃曰后, 諸侯曰夫人, 大夫曰孺人, 庶人曰妻).”라고 하여 서인의 아내를 칭하는 말로 남편의 지위에 따라 여성의 칭위도 다르고 그에 따른 여성의 지위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금문에도 처(妻)가 나타나지만 혼인하는 여성에 대해 성과 국명, 미칭, 자, 시호, 신분 칭위 등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처(妻)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지 않다.

금문에 처(妻)가 나타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子_妻君妻鼎」 “子_妻君의 아내를 위한 예기(子_妻君妻).”

「徐太子鼎」 “徐의 태자 白□□가 좋은 아내를 위해 예기를 만든다(余(徐)大(太)子白□□爲_妻(其)好妻□□).”

「夫桼申鼎」 “정월 초길 정해일에 보처자심륙(甫處者甚六)의 처 부_申신(夫_申申)이 청동을 택해서 예기를 만든다(唯正月初吉乙亥. 甫處者甚六之妻夫_申申. 𠄎(擇)𠄎吉金. 乍(作)𠄎(鑄)飮鼎).”

「農卣」 “王𠄎令白(伯)𠄎曰. 母(母)卑_農(農)弋. 事(使)𠄎_友(友)妻_農(農).”

「父丁鼎」 “父_丁가 아버지 정의 처를 위한 예기를 만든다(父_丁作(作)父丁妻_鯀(盟)).”

(2) 媵

서주와 춘추시기의 청동기 중에 잉(媵)자가 새겨져 있는 기물이 다량

출현하는데 잉(媵)자가 있는 기물은 서주 중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서주 말기와 춘추시기의 청동기에 주로 나타나고 있다.

잉(媵)은 《釋名》에는 “질녀와 여동생을 잉(媵)이라 한다. 잉은 잇는 것을 말하는데 적처의 자리를 잇는 것을 뜻한다(姪弟曰媵, 媵承也, 承事嫡也).”라고 했으며, 《爾雅》에는 媵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送也).”고 하였다.

글자의 형태로 보아 曹兆蘭은 𡵓은 잉(媵)자로 변했는데, 그 관건은 인(亻)자가 여(女)자로 변해 후에는 잉(媵)자로 통용되었으며 인(亻)자가 있는 경우는 노복의 뜻이 있다고 하였다.⁹⁾

본인이 잉기를 살펴본 결과 인(亻)자를 형부로 하고 있는 잉(媵)자의 이체자는 「季宮父簠」 “계궁보가 중 烜두회를 위해 잉기를 만든다(季宮父乍(作)中(仲)嬖兜(姬)𡵓(媵)尅(簠)).”의 𡵓과 「季良父簠1」 “계량보가 종운을 위한 잉기를 만든다(季良父乍(作)宗結(妣)𡵓(媵)丘(簠)).”의 𡵓, 「季良父簠2」의 “계량보가 종운을 위한 잉기를 만든다(季良父乍宗結(妣)𡵓(媵)丘(簠)).”의 𡵓 등 3건이 있는데 문장을 풀이하면 노복이라고 볼 수 없고, 「季宮父簠」의 𡵓과 「季良父簠」의 𡵓은 모두 잉기의 뜻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으며, 「季良父簠2」의 𡵓 자는 𡵓자에 亻의 위치가 바뀐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문헌에는 《左傳·僖公》 5년 조에 “우(虞)나라 임금과 대부 형백(井伯)을 체포하여 진(秦)나라로 시집가는 진(晉)나라의 딸 목희(穆姬)의 노복으로 팔려 보냈다(執虞公及其大夫井伯以媵秦穆姬).”라고 하여 잉(媵)이 노복의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는데 금문에는 노복의 의미로 쓰이고 있지 않고, 잉기 또는 잉(媵)으로 가는 사람의 의미로 쓰인다고 할 수 있다.

《左傳·襄公》 19년 조에 “제(齊)나라 임금이 노나라에 장가들어 그 부인을 안의희(顔懿姬)라 했는데 아들이 없어 그의 질녀 종성희(穉聲姬)가 광(光)을 낳아 태자로 삼았다(齊侯娶於魯, 曰顔懿姬, 無子, 其姪穉聲

9) 前掲書, 154~155쪽. “營與割二字很可能指兼男女, 特別是指男性. 從‘亻’或指施事者, 或指受事者(媵者). 貴族嫁女必陪送男女奴僕, 也是題中應有之義, 但這種陪送男女奴僕的情況金文尚未明見.”

姬生光, 以爲太子).”고 하여 잉(媵)의 역할을 알 수 있는데, 잉혼은 종으로 대를 잇는 종법제도 하에 적장자를 보장해 주는 제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左傳·成公》 8년 조에도 “딸을 시집보낼 때 동성의 잉(媵)을 보내는 데 작위 또한 잉(媵)이다(嫁女, 同姓媵. 爵亦曰媵).”라고 하여 첩과는 다른 신분이었으며 혼인 전에는 적처와 같은 신분이었지만 혼인한 후에 잉(媵)의 지위는 적처 다음이다. 더 나아가 잉(媵)은 적처가 이혼하면 자신도 같이 물러나야 했는데 《左傳·文公》 12년 조에는 “기(杞)나라 환공이 조회 들었는데 처음 문공을 조회한 것이다. 또한 숙희와 이혼하는데 잉(媵)에 대해서는 단절하지 않을 것을 청하여 문공은 허락하였다(杞桓公來朝 始朝公也. 且請絕叔姬而無絕昏, 公許之).”고 하여 ‘絕叔姬’는 그 혼인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말하고, 杜預의 주에 의하면 “그 여동생을 부인으로 삼았다(立其娣以爲夫人).”라고 하여 成公 5년 조의 숙희(叔姬)는 ‘絕叔姬’의 여동생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⁰⁾

또한 적처에게 자식이 없어 잉(媵)의 자식이 부계를 이르면 지위에는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적처의 지위에 오를 수도 있게 되어 이후에 여성이 자식의 뒤에서 정치에 참여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天君·王+출신국의 姓

금문에는 왕의 아내에 대한 칭위로 천군(天君)과 왕(王)+출신국의 성(姓)의 형으로 쓰고 있다.

「征人鼎」 “천군께서 정인에게 斤(斤)지역의 조개화패를 하사하셨다(天君俵(賞)征人斤貝).”

「公姑鬲」 “천군의 은혜를 칭송하고 예기를 만들었다(對鬲(揚)天君休. 用乍(作)鬲).”

「趙孟」 “천군께서 趙에게 息을 섬기도록 하였다(天君事(使)趙(趙)事息).”

「尹姑鬲」 “목공이 윤길을 위해 요림에 종실을 지었다. 때는 6월 기생

10) 前掲書, 585쪽.

패 을묘일이다. 휴왕의 천군께서는 목공 성의 선왕을 밝게 보필한 것을 잊지 않았다(穆公乍(作)尹故(姑)宗室於繇林. 佳(唯)六月既生霸乙卯. 休天君弗望(忘)穆公聖明(明)張(弼)專(輔)先王).”
 「王姜鼎」 “왕의 아내 강성의 여성이 공사(弊嬖)를 위한 예기를 만든다(王姜乍(作)弊故(嬖)寶尊(尊)彝).”
 「王伯姜壺」 “왕의 아내 백강(伯姜)이 예기를 만든다(王伯(伯)姜乍(作)寶尊(尊)壺).”

주대의 문헌과 금문에는 주왕실의 딸과 주왕실로 시집간 여성에게는 王을 붙이고 있다.

(5) 小君·內君·夫人·君夫人

《左傳·定公》 14년 조에 “나를 따라 소군을 뵈고, 소군이 나를 보았다(從我而朝少君, 少君見我)”라고 했는데 여기서 少君은 위나라의 남자(南子)이며 제후의 부인을 뜻한다.

《左傳·文公》 5년 조에 “나의 부인 성풍(成風)의 장례를 치루었다(葬我小君成風).”라고 했는데 성풍은 원래 노장공(魯莊公)의 서처였는데 희공(僖公)을 낳아 부인의 반열에 들었으며 제후와 같은 예로 장례를 치루어 소군(小君)은 제후의 부인을 칭하는 말이다.

《左傳·隱公》 2년 조에 “부인 우씨가 죽었다(夫人於氏薨).”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부인은 혜공(惠公)의 적처를 가리키는 말로 제후의 적처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적처 이외의 여성에게는 卒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죽음에 대해 薨(薨)이라고 한 것도 제후와 같은 지위로 보고 있다는 증거이다.

「鄧公簋蓋」 “둔부인 사가 등공을 위해 예기를 만든다(屯夫人亼(嬖)乍(作)併(鄧)公).”
 「衛文君夫人叔姜鬲」 “위나라 문공의 군부인 강숙이 이동용 예기를 만든다. 鬲을 따라 순행할 때 사용하여라(衛文君夫人弔(叔)姜乍(作)其行鬲. 用從穆征(征)).”
 「宋公簠簋」 “송나라 임금 宋公가 그 누이 구어부인이 되는 계자를 위해 영기를 만든다(宋公穆乍(作)其妹句致(致)夫人季子滕匡(簠)).”
 「子叔羸內君盆」 “자숙영 내군이 보배로운 기물을 만들었다(子弔(叔)


嬴內君乍(作)寶器.”

「子叔嬴內君盆」의 ‘內君’도 제후의 부인을 칭하는 말로 볼 수 있다
《論語·季氏》에는






“군주가 국군의 아내를 부를 때에는 부인이라 하고, 부인이 스스로 일
컬을 때에는 소동이라 하며, 그 나라 사람이 부인을 부를 때는 군부인
이라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부인을 말할 때에는 과소군이라 하
며 다른 나라사람들이 부인을 일컬음에 군부인이라 한다(邦君之妻,
君稱之曰夫人, 夫人自稱曰小童, 邦人稱之曰君夫人, 稱諸異邦曰寡小君,
異邦人稱之亦曰君夫人).”

라고 하여 군주가 자신의 아내를 부인이라고 칭하는 것과 나라 사람들
이 군부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군주 부인의 지위도 군주와 동등하게 보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婦

《說文》에는 “부(婦)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여(女)를 의미부로 하고
빗자루를 가지고 물을 뿌리며 청소하는 것을 말한다(婦, 服也. 从女, 持
帚, 洒埽也).”라고 하였으며, 부(婦)의 금문 자형은  등으로 빗자
루를 들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曲禮》에는 “사의 아내를 부인(婦人)이라고 한다(士之妃曰婦人).”라
고 하여 士의 아내에 대한 칭위이고, 《爾雅·釋親》에는 “아들의 아내를
부를 때 쓰는 말이다(子之妻爲婦).”라고 하여 며느리라는 뜻이 있어 혼
인한 여성에 대한 칭위로 쓰이며 혼인한 여성의 역할을 보여주는 글자
이다. 《金文語料庫》에 의하면 부(婦)자가 있는 기물이 210건인데 그
중에 은대의 기물이 152건, 춘추시기 2건, 나머지는 서주의 기물로 부
(婦)는 은대와 서주시기에 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君盃」 “군의 부인 귀가 예기를 만드니 孫이 사용하기 바란다
(君婦媿嬪(作)其孫用).”

「義伯簋」 “의백이 궁부인 육길을 위해 예기를 만든다(義白(伯)乍(作)

妻(宮)敵(婦)陸敵(姑)).”

「復公仲簋蓋」“𡇗子孟婚 부인을 위해 잉기를 만든다(用乍(作)𡇗子孟
婚婦)□ 𡇗(尊)卅(媵)殷(簋)).”

4.3 여성의 사회 신분칭위

금문에 여성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은 다양한데 그 중 첩(妾)과 모(姆)는 사회적인 신분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첩(妾)에 대해서는 처(妻)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금문에는 노비의 신분으로 적처와 상대개념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주대 이후로 볼 수 있다.

(1) 妾

妾의 금문 자형은 𡇗 𡇗 이며, 《金文常用字典》에는 “於省吾는 사람의 머리 위에 ㄱ ㅍ ㅍ 등을 더한 모습으로 𡇗자가 되었는데 머리를 장식하거나 관 위의 뿔 종류의 모양이다. 동(童)과 첩(妾)은 모두 𡇗 또는 𡇗가 있어 죄가 있는 표지 𡇗가 아닌가 한다.”¹⁴⁾고 하여 여자 노예를 뜻한다고 하였다. 하영삼교수는 “신(辛)과 여(女)가 합쳐져 만들어진 글자로 첩(辛)은 원래 목형을 가하던 칼을 형상화하여 힘들다 또는 고통스럽다는 뜻이 나오게 되었으며, 그래서 辛이 들어가는 글자는 대부분 목형과 관련이 있으며 첩은 목형을 당한 천한 여인 또는 노예를 나타내는 말이었다.”¹⁵⁾고 하였다.

《左傳·僖公》 17년 조에 “장차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낳을 겁니다. 아들은 신하가 될 것이고 딸은 시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이름은 어(圉)라 짓고 딸은 첩(妾)이라 불렀다(將生一男一女. 招曰然. 男爲人臣, 女爲人妾, 故名男曰圉女曰妾).”고 했는데 杜預는 “신첩의 본뜻은 노비를 뜻한다(臣妾之本義爲奴婢).”라고 하였다.

《左傳·昭公》 25년 조에 “계사와 옹인이 서로 사통하여 두려운 나머지 자기의 시녀에게 시켜 매질하게 하였다(季嬖與襄人檀通, 而懼, 乃使

14) 陳初生 編著, 《金文常用字典》(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87), 271쪽.

15) 河永三, 《연상한자》(서울: 예담, 2004), 104쪽.

其妾扶己).”라고 하였으며 楊伯峻도 “첩은 시녀이다(妾, 婢女也).”¹⁶⁾라고 주하여 첩의 본의는 노비라고 하였다.

또한 《釋名》에는 “첩은 사통하는 것으로 천하게 사통하여 즐기는 것을 말한다(妾, 接也, 以賤接幸也).”고 하였으며, 《禮記·內訓》에는 “혼인에 예를 갖추면 처이고 예를 갖추지 않으면 첩이다(聘則爲妻, 奔則爲妾).”라고 하여 예를 갖추지 않고 취한 여성을 말하는 것으로 춘추 말기에는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은 측실을 첩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公羊傳·僖公8年》 “부인을 강씨라 칭하지 않은 것은 폄하하여 첩을 처로 삼은 것에 대해 나무라는 것이다(夫人何以不稱姜氏貶. 曷爲貶, 譏以妾爲妻也).”

《穀梁傳·僖公8年》 “부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씨성으로 말하고, 씨성으로 말하지 않으면 부인이 아니다. 첩으로 세웠다는 말이며 옳은 것이 아니다(言夫人必以其氏姓, 言夫人而不以氏姓非夫人也. 立妾之辭也. 非正也).”

《穀梁傳·僖公9年》 “첩을 처로 삼지 말고 부인에게 나라 일을 하게 하지 말라(毋以妾爲妻, 毋使婦人與國事).”

등에서 춘추 후기에는 이미 첩이 처가 되기도 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점점 妻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변해갔다고 볼 수 있다.

《禮記·曲禮上》에는 “아내를 맞이할 때는 동성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첩을 살 때 그 성을 모르면 첩을 쳤다(娶妻不娶同姓, 故買妾不知其姓則卜之).”라고 하였으며, 呂思勉은 잉과 첩의 차이에 대해, “남자의 권한이 무한했으므로 가정의 여성은 모두 통간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중에 처로부터 온 여인은 잉이 되었으며 집에 원래 있던 여자는 첩이라고 하였다. 고대에는 잉과 첩을 병칭했는데 후세에는 시집갈 때 여성을 함께 보내는 제도가 없어지고 잉이라는 명칭도 없어지고 모두 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¹⁷⁾고 하여 잉과 첩을 병칭하고 있는데 금문에 나타나는 첩은 잉과는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문에 첩이 나타나는 경우는 모두 8건이다.

16) 前掲書, 1460쪽.

17) 呂思勉, 《先秦史》(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 255쪽.

「伊簋」“강궁의 왕의 신첩과 백공을 관리하라(𡵓(兼)官(司)康宮王臣妾百工).”

「宰獸簋」“강궁의 왕가 신첩과 노복을 관리하라(𡵓(兼)官(司)康宮王家臣妾(庸)).”

「師卣簋」“나의 동편 서편 노복과 백공목과 신첩을 관리하라(卬(司)我西扁(偏)東扁(偏)僕(駟)百工牧臣妾).”

「逆鐘」“집안의 노복, 신, 첩, 소자 등과 집안을 관리하여라(用(司)於公室僕庸臣妾(小子)室家).”

「大克鼎」“너에게 정가(井家)의 田於說과 신과 첩을 상으로 준다(易(賜)女(汝)井家田於說. 兵(以)卒臣妾).”

「趙君壺」“趙君은 첩을 계도하라. 언나라 임금에게 복문(復門)을 상으로 준다(趙君(啓)妾. 匱(燕)僕(侯)商(賞)復門).”

「復作父乙尊」“의복, 노복, 첩, 조개화패를 상으로 준다. 이로 아버지를 위한 예기를 만든다(衣臣妾貝. 用乍(作)父乙寶(尊)彝. 美).”

「叔德簋」“왕이 숙덕에게 노비 10명과 조개화패 10봉, 양 100마리를 상으로 내리다(王易(賜)帛(叔)德(德)臣(數)十人貝十朋羊百).”

위의 금문에 나타나는 첩은 모두 노복을 지칭하고 있다.

「叔德簋」의 數는 복사에는 보이지 않으나 문헌에는 예가 보인다. 《左傳·昭公》 7년 조의 “僕臣儻”의 儻는 금문 중의 數와 닮았으며 하인을 뜻한다. 그러나 금문에는 여성임을 강조하기 위해 여(女)자를 붙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陳夢家是 《西周銅器斷代》에서 대(儻)는 신하의 일종으로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하사할 때 줄 수 있는 사람이다.”¹⁸⁾고 하였다. 명문 내용을 보면 상의 물목을 적은 순서가 먼저 조개화패와 양을 내리고 다음에 남자노복 신(臣)을 내리고 다음에 여성 노비의 순으로 하여 그 위치가 물건 다음에 있어 그 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문헌과 금문의 기록을 통해 보면 첩은 사회적인 신분은 원래 낮은 하층 노예로 잉의 의미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18) 陳夢家, 《西周銅器斷代》(北京: 中華書局, 2004) 제2권, 108쪽.

(2) 姆

《禮記·內則》에는 여자가 혼인하기 전에 익혀야 할 덕목을 말하고 있는데¹⁹⁾, 모(姆)는 출가하기 전의 여성을 교육 시키는 사람으로 일상 생활에 관한 것, 제사와 손님접대 등 전반적인 교육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귀족 집안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모(姆)라고 할 수 있다. 모(姆)는 《說文》에는 “모(姆)는 여스승을 뜻한다. 여(女)는 의미부이고 모(母)는 소리부이며 모(母)라고도 읽는다(姆, 女師也. 從女母聲, 讀若母).”고 하였다.

주대 금문에는 모(姆)가 나타나지 않고, 전국시기의 기물 「中山王_寶鼎」에 “佳(唯)傭(傅)梔(姆)氏(是)從.”라고 하여 부(傅)와 모(姆)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금문 자형은 𠂔로 의미부에 인(亻)이 쓰이고 있다.

《左傳·襄公》 30년 조에 “송나라 공공의 부인 송공희가 화재로 죽었는데, 유모를 기다린 때문이다(宋伯姬卒, 待姆也).”라고 했는데, 杜預는 모(姆)를 여스승이라 풀이했다.²⁰⁾ 또한 《公羊傳》 何休의 注에는 “예기에는 제후의 부인은 반드시 유모가 있는데 그 행동을 바르게 하고 몸을 보호한다. 노대부를 가려 남자 스승으로 삼고, 노대부의 처를 가려 유모로 삼는다(禮, 后夫人必有傅母. 所以輔正其行, 衛其身也. 選老夫爲傅, 選老夫妻爲母).”고 하여 모(母)는 모(姆)로 볼 수 있으며 상류층의 딸을 교육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통해서 보면 杜預가 여사(女師)라고 한 사람은 시중드는 사람, 옆에서 모시는 사람, 유모 등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어머니를 대신하여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나이든 여성으로 교양을 갖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

5. 결 론

칭위는 개인적인 특징 뿐 아니라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

19) “女子十年不出, 姆教婉, 婉聽衆, 執麻枲, 治絲茧, 織紵組紃, 學女事, 以供衣服, 關於祭祀, 納酒漿飴豆, 菹醢, 禮相助奠.”

20) 前掲書, 1147쪽.

이 되는 단서가 될 수 있는데 주대 금문에는 전대에 비해 더욱 다양한 여성칭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혼인시의 칭위, 사후의 칭위, 친족 칭위, 신분 칭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혼인 시의 칭위를 알 수 있는 기물에는 여성의 자 또는 이름, 미칭, 성과 향렬 등을 기록하였고 여성에게는 남성과 달리 꼭 성을 사용했는데 이는 일부다처형이었던 혼인제도 중에 동성불혼을 공고히 하여 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후의 칭위는 시호와 제사를 받는 대상의 친족칭위와 일간 등이 나타나는데 여성 개인의 시호를 사용하는 경우와 남편의 시호를 따르는 경우가 있는데 남편의 시호를 따르는 경우가 더 많다. 이외 祖母, 姑, 母, 妣, 文母, 皇母 등의 친족칭위와 서주 초기에는 여기에 일간을 더해 사용하는데 이 점은 남성과 같은데 사후의 예기는 자식들이 만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에 대한 효의 관념에는 차별이 없다는 점과 제사를 받는 대상으로서의 여성은 남성과 같은 지위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신분을 나타내는 칭위는 친족 칭위와 혼인으로 변하는 칭위와 사회적인 지위를 알 수 있는 칭위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의 혼인과 혼인전의 칭위를 알 수 있는데 혼인한 여성은 남편의 지위에 따라 신분칭위가 달라지고 혼인한 후에는 남편과 동등하게 대우하여 남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친족 칭위 중 姑는 장모, 시어머니, 고모 등에 대한 칭위로 이는 혼인제도의 특징을 담고 있는 말로 외혼제를 표방하던 주대에도 내혼제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말이다.

잉(媵)은 주대 혼인제도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말이며 적처로 시집가는 여성을 따라 가 적처와 함께 한 남성의 아내가 되던 사람으로 질녀 또는 동생이 잉(媵)이 되었다. 잉(媵)의 신분은 혼인 전에는 적처와 같은 신분이었으나 혼인 후에는 적처 다음의 지위이며 종법제도를 유지해주는 제도였다고 할 수 있던 잉혼제가 제후국간의 정치적인 이해에 의한 정략적 혼인이 이루어지면서 잉(媵)은 점점 지위가 낮아지기도 하고 자식의 지위에 따라 권력을 가지는 현상도 나타나면서 여성의 활동범위는 자식이나 남편의 지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첩(妾)은 원래 목형을 당하던 천한 신분이었으나 춘추 후기로 가면서 적처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금문에는 妾에 대한 기록이

모두 노비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모(姆)는 원래 집안의 어른이나 경험이 많은 여자 어른이 귀족 집안의 딸을 교육하고 보호하던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전국시대 금문에 나타나고 문헌에도 춘추 후기에 보이는데 이후에 유모가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주대 금문에 나타나는 여성칭위를 통해 알 수 있는 여성은 대부분 귀족 신분이며 혼인 전에는 딸로서 부모의 영향아래 있으며, 혼인 후에는 혼인 배우자의 지위에 따라 왕후, 제후의 부인, 대부 또는 사 등의 아내로써 다른 지위를 지니게 되고, 사후에는 자손들에게 제사를 받는 대상이 된다. 주대에 여성칭위가 다양해지고 세분되는 것은 사회의 변화와 계층의 분화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봉건 정치제도에 의해 적장자를 중시하게 되고 이로 인해 파생된 부계 중심의 혼인제도는 여성의 지위에도 영향을 끼치고 각 칭위에는 그 지위에 따라 다른 여성의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대 여성은 남성 쪽으로 시집가는 혼인제도 하에서도 독립적인 자신의 성과 이름 등을 유지했는데 이 또한 부계사회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여성은 점점 남성에게 귀속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사회 제도적인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되지만, 금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여성 칭위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상징적인 지위는 남성과 차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郭沫若, 《兩周金文辭大係圖錄考釋》, 北京: 科學出版社, 1957.
郭鼎堂, 《中國古代社會》, 北京: 中華書局, 1954
羅振玉 編著, 《三代吉金文存》, 北京: 中華書局, 1982
童書業, 《春秋左傳研究》,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0
呂思勉, 《先秦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
白川靜 著, 溫天河, 蔡哲茂 合譯, 《金文的世界》, 臺灣: 聯經出版事業公司, 1989
謝維揚, 《周代家庭形態》,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2005
曹兆蘭, 《金文與殷周女性文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4

- 趙 誠, 「諸婦探索」, 《古文字研究》, 北京: 中華書局, 1985
- 陳 立 撰, 吳則虞 點校, 《白虎通疏證》, 北京: 中華書局, 1994
- 楊樹達, 《積微居金文說》,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 楊伯峻 編著, 《春秋左傳注》, 北京: 中華書局, 2009
- 楊 寬, 《古史新探》, 北京: 中華書局, 1965
- 王国维, 《觀堂集林》, 北京: 中華書局, 1959
- 王進鋒, 「叔德簋銘‘姪’字釋讀」, 上海: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 2011, 4
- 王德明 主編, 《孔子家語譯注》, 廣西: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8
- 王 力 主編, 《古代漢語》, 北京: 中華書局, 1995
- 王念孫(清), 《廣雅疏證》, 北京: 中華書局, 2004
- 容 庚 編著, 《金文編》, 北京: 中華書局, 1985
- 劉 正, 《金文廟制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
- 劉 源, 《商周祭祖禮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04
- 劉 熙 撰, 畢沅疏證, 王先謙 補, 《釋名疏證補》, 北京: 中華書局, 2008
- 李仲操, 「兩周金文中的婦女稱謂」, 《古文字研究》, 北京: 中華書局, 1992, 18輯
- 李學勤, 「先秦人名的幾個問題」, 《社會問題的歷史考察》, 成都: 成都出版社, 1992
- 李學勤, 「考古發現與古代姓氏制度」, 《考古》 第3期, 1987
- 李玄伯, 《中國古代社會新研》, 上海: 上海藝文出版社, 1988, 據1949年開明書店本影印
- 陳初生 編著, 《金文常用字典》,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87
- 陳 絜, 《商周金文》, 北京: 文物出版社, 2006
- 《十三經注疏》 전8권, 臺灣: 藝文印書館, 1989
- 陳夢家, 《西周銅器斷代》, 北京: 中華書局, 2004
- 陳昭容, 「兩周婚姻關係中的“媵”與“媵器—青銅器銘文中的性別·身分與角色研究之二」,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2006
- 陳東原, 《中國婦女生活史》, 北京: 商務印書館, 1937
- 崔明德, 《先秦政治婚姻史》, 山東: 山東大學出版社, 2004
- 河永三, 《연상한자》, 서울: 예담, 2004
- 胡進駐, 「商周婦女稱謂及婚姻制度淺探」, 《殷都學刊》 第10期, 2002

张淑一,「金文族姓研究中的常見問題」,《古籍整理研究學刊》第4期,2008

<中文提要>

本论文主要考察了关于金文上所出现的女性称谓。周代金文中出现的女性称谓比前代多样化而细分化,这跟社会制度的变化和婚姻制度有关。

金文上出现的女性称谓,可分为婚姻称谓、死後称谓、亲族称谓、身分称谓等等。以婚姻时带走的媵器来可以看出它是关于婚姻称谓的器物。媵器上所记录的女性称谓有婚姻女性的姓、名、字、美称、辈行 等等,也有作器者母亲时母名义。

死後女性的称谓有谥号、受祭祀对象的亲族称谓、干支 等等,其中有独立用个人谥号的和随她丈夫谥号的。女性身分的称谓作为亲族称谓,从而可知女性的婚姻和婚姻前的称谓,婚姻女性的称谓随她丈夫的地位不同。亲族称谓有女、母、妣、姑、侄、姒 等等,婚姻後的身分称谓有妻,媵,妇 等等。这些都属于婚姻女性的一般称谓,随她丈夫所得到的称谓如下:王的妻子称天君,诸侯的妻子称小君、内君、夫人、君夫人,士的妻子称妇。

女性的社会身分称谓有妾、姆。正妻以外统称妾,可金文上所出现的妾都表示奴婢,通过这可知正妻以外的女性地位都低,周代封建制度和宗法制度重视嫡长子。从而产生男性中心的婚姻制度,这反映随着社会制度的不同,妇女地位也受影响。

通过周代金文中的女性称谓可知女性婚姻前身分上并没有差别,但是婚姻後,随这丈夫的地位和正妻或媵,其身份和作用都产生变化,进入春秋後期女性渐渐归属於男性。作为妻子和死後母亲的身分,女性所享受的地位是跟男性同样的。

關鍵詞 : 女性 姓氏 婦人 媵 親族 婚姻

투 고 일 : 2013.6.30

심 사 일 : 2013.7.2~8.20

게재확정일 : 2013.8.22